『錦溪筆談』에 기록된 신라 이야기 연구

- 역사의 口演과 記錄을 중심으로 -

이채경*

- 차 례 -

1. 서론

2. 口演과 記錄의 産物

2.1. 朝鮮에 전해진 신라의 풍속

2.2. 史書에 기록된 신라의 인물

3. 前代 야담 속 신라 이야기

4. 결론

*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초빙교수, youyoung149@hanmail.net

〔국문 초록〕

조선 후기에 출현한 野談은 하층민에 의해 창작되어 민간에 流傳되다가, 識字層에 의해 기록되어 서사문학으로 정착되었다. 17세기 『於于野談』을 시작으로, 18세기 『天倪錄』 등을 거쳐, 19세기 『錦溪筆談』을 비롯한 여러 야담집이 등장하였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허구가 다채로운 이야기로 交織되어 풍부한 敍事體를 완성시켰다.

본고에서는 후기 야담집 『금계필담』에 기록된 신라 이야기를 고찰하였다. 특히, 신라의 풍속과 인물 등이 야담 속 구연과 기록을 통해 어떻게 전승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삼국의 역사서 『三國史記』 및 『三國遺事』 속 신라에 대한 기록과 비교 분석하고, 나아가 초기 야담집 『천예록』 소재 신라 이야기도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시대변화에 따른 역사의 전승과 야담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상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후기에 출현한 『금계필담』은 당시 조선에 전해진 신라의 풍속을 담아냈다. 둘째, 『금계필담』의 저자는 역사서에 기록된 다양한 신라의 인물 이야기를 다루었다. 셋째, 前代에 나온 『천예록』은 『금계필담』과는 또 다른 신라(경주)의 역사와 인물을 흥미롭게 再構하였다. 요컨대 『금계필담』에 기록된 신라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과 허구 및 야담적 구연과 기록을 중심으로 다양한 풍속과 인물을 그려냈다.

주제어 : 錦溪筆談, 野談, 口演, 記錄, 新羅, 朝鮮, 歷史書, 天倪錄

1. 서론

조선 후기에 출현한 野談은 하층민들에 의해 창작되어 꾸준히 口演으로 민간에 유행되다가, 식자층에 의해 記錄되어 마침내 서사문학으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하층민의 구연에서 1차 창작이 이루어지고[口演化], 식자층의 기록에서 2차 창작이 이루어지는[記錄化] 複數의 창작과정을 거쳤으며, 여타 서사문학과 달리 하층민과 식자층의 견문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다시 말해 구연자 내지는 聽者로서 하층민의 활동과 기록자 내지는 讀者로서 식자층의 역할이 종합된 결과물인 셈이다.

야담은 17세기 柳夢寅이 찬술한『於于野談』을 시작으로, 18세기 任堕이 저술한『天倪錄』외에 다양한 작품집을 거쳐, 19세기 徐有英이 편찬한『錦溪筆談』을 비롯한 여러 야담집이 등장하였으며, 이후 20세기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민간에 流傳되다가 점차 사라졌다. 이처럼 시대별로 등장한 야담과 야담집은 조선 후기의 시대상과 사회상은 물론 인물상과 생활상을 오롯이 담고 있다. 거기에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야담적 허구가 다채롭게 交織되어 풍부한 敍事體를 완성시켰다.

본고에서는 비교적 후기 야담집에 속하는『금계필담』에 기록된 신라 이야기를 고찰한다. 특히, 신라의 풍속과 인물 등이 야담 속 구연과 기록을 통해 어떻게 전승되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예컨대 삼국의 대표 역사서로 알려진『三國史記』및『三國遺事』속 신라에 대한 기록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야담에서 역사를 다루는 방식을 파악한다. 나아가 초기 야담집에 속하는『천예록』소재 신라 이야기도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시대변화에 따른 역사의 전승과 야담의 특징을 도출한다.

지금까지 『금계필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으나,[1] 야담과 역사의 연관성에 대한 논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역사 속 신라 이야기를 다룬 연구논문은 없었다. 이에 필자는 『금계필담』所載 신라 이야기를 선별하여 역사적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구연과 기록을 통해 전승된 신라의 풍속과 인물에 주목하여 야담의 서사화를 고찰할 것이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허구의 산물인 야담의 서사적 특징을 부각시키는 성과를 얻으리라 확신한다.

2. 口演과 記錄의 産物

『금계필담』은 조선 후기 徐有英[2]이 견문한 141편의 이야기를 수록하여 1873년에 편찬한 야담집이다.[3] 특히, '左海逸事'라는 副題를 붙여 역사 기록에서 빠진 이야기를 채록하였음을 밝혔는데, 이는 "말년에 병들어 나태해진 마음을 달래고자 심심풀이[破寂之資]로 쓴다."라고 한 序文에서도 드러난다.[4] 이 책은 왕과 왕비, 문신과 무인, 異人과 壯

1) 이강옥, 「『六美堂記』와 『錦溪筆談』의 비교분석을 통한 소설과 야담계 서사체의 관계 양상 고찰」, 『한국학보』 제12권(한국학보(서지사), 1986), 1121-1145면; 임완혁, 「『錦溪筆談』 異本考」, 『한국한문학연구』 제23권(한국한문학회, 1999), 389-416면; 강미정, 「『錦溪筆談』 소재 <光廟有一公主>를 통해 본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문제의식과 그 한계」, 『한국고전연구』 제27집(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177-222면.

2) 徐有英(1801-187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 達城. 호 雲皐. 孝明世子의 죽음(1830)으로 과거공부를 포기하고 洛社 등 詩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1860년 음관으로 관직에 나아가 宜寧縣監 등을 지냈다. 1868년 유배형을 받고, 1870년 解配되어 고향인 錦溪에서 거처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작품으로 시집 『雲皐詩選』, 야담집 『錦溪筆談』, 한문소설 『六美堂記』가 전한다.

3) 『錦溪筆談』은 1873년 저술된 야담집으로, 여러 異本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연세대도서관본을 텍스트로 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序文의 기록을 살펴보면, 상백문고본은 '1873년 10월 26일', 국립중앙도서관본은 '1873년 10월 28일', 고려대도서관본은 '1873년 12월 23일'에 지었다고 한다. 임완혁, 『구연 전통과 서사』(태학사, 2008), 164면.

4) 徐有英, 『錦溪筆談』 <序>. 自余家錦溪, 深山窮峽, 寂無來客, 終日閉門, 維事病懶而已. 竊欲著書, 聊以自遣, 然年迫桑榆, 少日記誦, 皆已遺忘, 又傍無書籍, 無所攷據. 乃掇拾舊聞, 隨思輒錄, 僅得百三十八事, 纔一月而畢, 名篇曰'錦溪筆談', 雖謂之杜撰, 亦可矣. 蓋此一篇, 或漏信史, 雜出野聞, 多有眞贋之相半. 然至若管窺得斑,

士, 여인 등에 얽힌 이야기를 대략 시대순으로 서술하고, 풍속에 관한 잡다한 이야기를 첨부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에 대다수 문헌으로 전승된 여타 야담집과 달리 저자가 견문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수록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5)]

『금계필담』에 기록된 신라 이야기는 총141편 중 8편에 불과하다. 여타 야담과 비교하면, 모두 짧은 편폭에 서사적 면모도 소략하지만, 시대적인 거리가 멀고 역사적인 관점이 달랐던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의미있는 숫자라고 하겠다. 추정컨대 조선 후기에도 민간에 구연되던 신라 이야기였거나, 아니면 저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특이점을 전제로 특정 이야기를 기록해야겠다는 야담의 서사적 취지를 수용한 자세라고 보아도 좋겠다.

본장에서는 8편의 길고 짧은 신라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야담의 특징을 삼국의 역사서에 담긴 기록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과에 의미를 부여해본다.

2.1. 朝鮮에 전해진 신라의 풍속

우리 역사상 불교는 삼국시대에 전래되어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크게 흥성하였으며, 전성기에는 수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불상과 석탑을 조성했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왕권을 강화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불교를 國敎로 정착시켰으며, 前代의 호국불교 전통을 계승하여 국가적 행사로 팔관회와 연등회 등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論及故事, 則不無少補於破寂之資, 而亦足爲談助之一端云.

5) 서유영의 서술 시각은 "예전에 들은 것을 수습하여 생각나는 대로 매번 기록[掇拾舊聞, 隨思輒錄]"하고, "믿을 만한 역사서에서 누락되거나 민간에 떠도는 소문에서 뒤섞여 나올 이야기[或漏信史, 雜出野聞]"라고 한 데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사건의 발생시점과 기록시점의 간격이 크고, 이야기의 기억과 망각 및 보완과 변개 과정에 작가의 취향이나 세계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이강옥, 「『금계필담』과 『육미당기』의 비교」, 『한국 야담 연구』(돌베개, 2006), 486면.

는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으로 돌아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교 관련 이야기나 풍속은 다양하게 전승되었다.

2.1.1. 불교 전래와 사찰

다음은 신라의 불교 전래와 사찰 창건에 관련된 이야기다.

> 우리나라는 당초에 佛法이 없었다. 신라 南解王 원년(A.D.4)에 53佛이 天竺國에서 石鐘을 싣고 바다를 건너와서 高城縣에 정박하고, 금강산을 향해 가서 느릅나무가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縣官의 집사가 왕에게 아뢰어 즉시 그 땅에 절을 지어 거기에 안치했는데, 지금 '楡岾寺'가 그곳이다. 바로 漢平帝 원시 4년(A.D.4) 갑자의 일로, 이는 고려 평장사 閔漬[6]의 기록[7]에 실려 있다.[8]

> 【불우】 楡岾寺 금강산의 동쪽에 있는데, 고을과의 거리는 60여 리이다. 절의 大殿을 能仁이라 한다. ○閔漬의 記文에는 이렇게 적었다. "53佛이 月氏國에서 무쇠 종을 타고 바다를 떠와서 안창현 포구에 대었다. 고을의 수령 盧偕이 관속을 거느리고 가보니, 다만 여러 작은 발자국이 진흙 위에 있는 것이 보이며, 나뭇가지가 모두 산 서쪽으로 쓰

6) 閔漬(1248-1326): 고려 후기의 문신. 본관 驪興. 자 龍涎, 호 默軒, 시호 文仁. 1266년(원종 7) 과거에 장원 급제하고, 벼슬이 守政丞에 이르렀다. 당대 뛰어난 문장가로 불교에 심취하였으며, 문집으로 『默軒集』이 전한다.

7) 고려시대 민지가 쓴 <金剛山楡岾寺事蹟記>를 가리킨다. 記文에서 유점사는 신라 제2대 남해왕 원년(A.D.4)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신라 제3대 유리왕 5년(A.D.28) "이 해에 민속이 즐겁고 평안하여 비로소 <兜率歌>를 지었으며, 이것이 歌樂의 시초다.[是年, 民俗歡康, 始製兜率歌. 此, 歌樂之始也.]"라고 하였으니, 그보다 앞서 불교풍속이 시작된 듯하다.

8) 徐有英, 『錦溪筆談』 下. 我東初無佛法. 新羅南解王元年, 五十三佛, 自天竺國, 乘石鐘, 泛海而來, 泊高城縣, 轉向金剛山, 列坐於楡樹枝. 縣官盧偕, 白于王, 卽於其地創寺, 以安之, 今楡站寺, 是也. 乃漢平帝元始四年甲子事, 此載高麗平章事閔漬所記. 이하 『금계필담』 소재 인용문은 비록 짧지만 대부분 全文임을 미리 밝혀둔다.

> 러지고 또 鍾을 달고 쉰 곳이 있었다. … 종소리를 듣고는 그 소리를 따라 洞門으로 들어가니 큰 못이 있고, 못 위에 느릅나무가 있는데, 종을 나뭇가지에 걸고 여러 부처들이 못 언덕에 늘어서 있으며 이상한 향기가 풍겼다. 脩이 관속들과 함께 나아가서 예를 갖추고 돌아와서 왕께 아뢴 다음, 절을 창건하여 모시고 그 이름을 榆岾寺라 하였다."[9]

불교 사찰은 저마다 남다른 창건설화를 간직하고 있다. 위 인용문을 살펴보면, 야담과 지리서에서 모두 榆岾寺는 天竺國(또는 月氏國)에서 온 53佛이 '느릅나무가지[榆樹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고 하여 이름 지어졌다. 그런데 불법이 전해진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여 조선시대는 물론 지금도 정확한 연대를 소명할 수 없다. 사실 대부분의 창건설화는 불교의 영험성을 강조하는 데 치중하여 설화 내용을 사실 여부나 과학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위 야담에서 저자는 신라 불교가 南解王 원년에 전래된 것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역사서에는 訥祇王 때 고구려 墨胡子가 불교를 전해주었거나, 이후 炤智王 때 阿道和尙이 신라에 불교를 전한 것으로 적었다.[10] 이 또한 『삼국사기』의 기록은 金大問의 『鷄林雜傳』에 따른 것이라 했으며,[11] 『삼국유사』의 기록은 新羅本紀와 我道和尙碑文을 비교하며 서로 내용이 어긋난다고 밝혔다.[12]

『금계필담』의 저자는 신라의 불교전래 상황을 자신의 견문에 근거해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저자가 말하는 불교전래 연대와 과정 및 사

9)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江原道-高城郡. [榆岾寺] 참조

10) 金富軾,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4, 法興王條. 十五年, 肇行佛法. 初訥祇王時, 沙門墨胡子, 自高句麗, 至一善郡, 郡人毛禮, 於家中作窟室安置. … 至毗處王時, 有阿道[一作我道]和尙, 與侍者三人, 亦來毛禮家. 儀表似墨胡子, 住數年, 無病而死.

11) 金富軾,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4, 法興王條. 此據金大問鷄林雜傳所記書之. 與韓奈麻金用行所撰我道和尙碑所錄, 殊異.

12) 一然, 『三國遺事』 卷3, 興法 3, <阿道基羅>. 據此, 本記與本碑, 二說相戾不同如此.

찰 창건설화는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고, 다만 민간에 전해지는 고려시대 寺蹟記[13]나 조선시대 遊覽記[14]에서 확인된다. 게다가 사실 여부 등 정확도마저 떨어져, 기록에 따른 문헌전승이라기 보다는 구연을 통한 채록이라는 데 힘이 실린다. 또 관찬지리서인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도 전래상황과 창건설화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대목이 확인된다.[15]

2.1.2. 정월 대보름 약밥

다음은 우리 전통음식 약밥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다.

> 우리나라 약밥[藥飯]은 신라 炤智王 때 출현했다. … 이때부터 나라 풍속에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약밥을 지어 까마귀에게 제사를 지내 그 은혜에 보답했다. 또 이날에는 온갖 일을 꺼려 감히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이름하여 '愼日'이라고 불렀는데, 俚言으로는 '怛忉'[16]라고 불렀다. 佔畢齋는 악부시 <怛忉歌>[17]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섧고 또 설운지고, 임금을 거의 보전치 못할 뻔했네. 유소장 안에 현학금 거

13) 유점사 창건설화 관련 자료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전하는 민지의 <금강산 유점사사적기>가 대표적이다.

14) 李宜顯, 『陶谷集』 卷25, <遊金剛山記>. "기축년(1709, 숙종35) 가을 9월, 계유일(6일)에 일찍 일어나서 승려들에게 명하여 절에 보관된 古蹟을 꺼내 보여 달라고 했더니, 승려들이 고려시대 민지가 기록한 사찰 창건 본말 책자를 내주었다.[癸酉, 早起, 令僧輩出示寺中古蹟, 僧輩以高麗閔漬所記建寺本末冊子進.]"

15)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江原道-高城郡. "[楡岾寺] … 지금 민지의 기문을 보면 극히 괴이하고 망녕되므로 전하여 믿을 것이 못 되지만, 그 지명들이 모두 있어서 그대로 여기에 붙여둔다." 이밖에 南孝溫의 <遊金剛山記>(『秋江集』 卷5)에도 "삼가 살펴보건대 민지의 기문은 일곱 가지 큰 妄說만 있어 하나도 취할 것이 없다.[謹按閔漬之記, 有七大妄說, 而無一可取者.]"라고 기록하였다.

16) '怛忉'는 '怛忉'와 의미상 통용되는 말이다. 굳이 해석하면, 前者는 '함부로 하는 것을 두려워하다'는 뜻이고, 後者는 '두려워하고 삼가다'는 뜻이다. 그런데 『금계필담』을 제외하면 모두 '怛忉'로 적었다.

17) <달도가>는 金宗直이 지은 <東都樂府>(『佔畢齋集』 卷3) 중 하나로, 총8편 가운데 <會蘇曲>, <憂息曲>, <鴉述嶺>, <怛忉歌>, <陽山歌>, <碓樂>, <黃昌娘> 7편은 전해지나, <天官寺> 1편은 제목만 남아 있다. <달도가>의 詩 전문은 이러하다. '怛怛復忉忉, 大家幾不保. 流蘊帳裏玄鶴倒, 揚且之晳難偕老. 忉怛忉怛. 神物不告知奈何, 神物告兮基圖大.'

꾸러지니, 어여쁜 왕비와 해로하기 어려웠네.'[18]

이로부터 나라 풍속에 매번 정월 상순 돼지·쥐·까마귀 날에는 모든 일을 조심하여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고, 15일을 '烏忌日'이라 하여 찰밥으로 제사를 지냈으며,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俚言에 '怛忉'는 슬퍼하며 모든 일을 금하고 꺼린다는 뜻이다.[19]

위 야담 전반부에는 '射琴匣' 설화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담겨 있다. 신라 소지왕 때 궁궐 焚修僧과 왕비가 私通하였는데, 못에서 나온 노인이 준 서찰을 까마귀가 왕에게 물어다주었고, 왕이 겉봉을 읽고는 고민하다가 내용을 확인한 뒤 金甲을 쏘았더니, 소지왕은 목숨을 건졌으며 사통하던 남녀가 죽었다고 한다.[20] 그런데 여기서 기인한 세시풍속이 주목을 받으며『금계필담』에 실렸다.

국가 역사서와 개인 문집 등에는 신라 소지왕과 관련된 역사 속 설화에 집중하여 기록되었지만,『금계필담』의 저자는 우리나라 풍속에 관심을 두었기에 내용도 달라진다.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찰밥[糯飯]을 지어 까마귀에게 제사 지낸 것은 신라 소지왕 때 생겨났고,[21] 이후『삼국유사』의 기록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18) 徐有英,『錦溪筆談』下. 我東藥飯, 出自新羅炤智王時. … 自是國俗, 每當正月望日, 爲藥飯, 以祭烏報之. 又以是日爲百忌, 不敢動作, 名爲愼日, 俚言謂之怛忉. 佔畢齋樂府怛忉歌云: '怛怛復忉忉, 大家幾不保. 流蘇帳裡玄鶴倒, 揚且之晢難偕老.'

19) 一然,『三國遺事』卷1, 紀異 1, <射琴匣>. 自爾國俗, 每正月上亥·上子·上午等日, 忌愼百事, 不敢動作, 以十五日爲烏忌之日, 以糯飯祭之, 至今行之. 俚言怛忉, 言悲愁而禁忌百事也.

20) 徐有英,『錦溪筆談』下. 王卽位二年正月望, 幸天泉亭, 有老人, 出自池中, 使烏含書, 至王所. 王見其書, 外封云, '開見二人死, 不開見一人死.' 王曰, "與其二人死, 不若一人死." 太史奏一人者王也, 王乃開見, 書曰'射琴匣'. 王入宮, 見琴匣, 橫在床下, 挽弓射之, 匣中有人伏焉. 內殿焚修僧, 與王妃潛通, 欲謀逆者也, 遂與妃伏誅.

21)『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권21, 慶尙道-慶州府. [糯飯祭烏] 신라 炤智王이 이미 琴匣의 禍를 면하자, 나라 사람들이 말했다. "만약 까마귀와 쥐와 용과 말과 산돼지의 功이 아니었더라면 임금께서는 화를 입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정월의 첫 子日, 첫 辰日, 첫 午日, 첫 亥日에는 모든 일에 조심하고 감히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

그대로 전승되었던 듯하다. 그런데 조선 후기 『금계필담』에 와서는 찰밥이 약밥[藥飯]으로 바뀌어 기록되었다.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에는 부럼을 깨고, 오곡밥에 갖은 나물을 먹으며, 다리 밟기와 달집태우기 등이 있다. 특히, 오곡밥은 찹쌀에 잡곡을 넣어 찰밥으로 지어 먹는데, 약밥은 찐 찹쌀에 대추와 밤 등을 넣어 다시 찐 것을 말한다.[22] 찰밥이 약밥으로 바뀐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야담집은 요리서가 아니라 민간에 口演으로 전해지던 풍속을 채록한 만큼 전승과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기록으로 전해지는 내용처럼 정확하지 못한 것은 이런 데서 기인한 것이라 파악된다.

2.1.3. 옥보고의 현금과 악곡

다음은 신라의 음악에 관련된 짤막한 이야기다.

> 玉寶高는 신라 景德王 때 사람이다. 지리산에 거처하며 鍊丹을 하여 仙界에 올라 琴을 켜면서 36曲을 지으니, 玄鶴이 뜰에서 춤을 추었다. 우리나라 玄琴은 바로 그가 만든 유물이지만, 악곡은 전해지지 않는다. 고운 최치원은 일찍이 옥보고에게 仙訣을 전수받고 가야산을 오가며 伽倻琴을 만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전해지는 것은 다만 <步虛詞>[23] 1곡뿐이다.[24]

愼日로 삼았다. 이 날을 속담으로 怛忉라고 하는데, 슬퍼하고 근심하여 禁忌한다는 뜻이다. 또 정월 16일을 烏忌日로 정하고, 찰밥으로 제사하였다. 나라의 풍속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書出池의 註에 나온다.

22) 『洌陽歲時記』에는 약밥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찹쌀을 대강 쪄서 만든 밥에 기름과 꿀과 진장을 넣어 비비고, 씨를 뺀 대추와 깐 밤을 잘게 썰어 쌀 양에 맞게 고루 넣고, 다시 은은한 불에 쪄서 제사상에 올리고 손님에게 대접하며 동네 이웃이 서로 나눈다.” 尹愭의 <又記東俗 四十六韻>(『無名子集』 詩稿 冊3)에도 정월 대보름 고사를 읊으며 “대추와 과일 섞어 약밥을 찌고, 나물 제수를 사당에 올리네.[飯蒸拘棗果, 廟薦間蘋蘩]”라고 하였다.

23) <步虛詞>는 고려시대 궁중음악으로, 宋나라에서 들어왔다. 원래 이름은 <步虛子>이며, 雅名은 <黃河淸>이다. <보허사>라는 이름은 조선 英祖 때부터 쓰였고, 純祖 때 『遊藝志』에는 <보허사>라는 이름으로 거문고 악보가 전한다. 『삼국사기』에는 <보허사>에 대한 기록이 없다.

24) 徐有英, 『錦溪筆談』 下. 玉寶高, 新羅景德王時人. 居智異山, 鍊丹升仙, 彈琴作

> 신라사람 沙飡 慕永의 아들 옥보고는 지리산 雲上院에 들어가서 50년 동안 琴을 연구하여 직접 새로운 곡조 30曲을 지었다. … 安長은 그 아들 克相과 克宗에게 전하여 극종이 7곡을 지었으며, 극종의 뒤에는 琴으로 자기 직업을 삼은 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 옥보고가 지은 30곡은 상원곡 1, 중원곡 1, 하원곡 1, 남해곡 2, 의암곡 1, 노인곡 7, 죽암곡 2, 현합곡 1, 춘조곡 1, 추석곡 1, 오사식곡 1, 원앙곡 1, 원호곡 6, 비목곡 1, 입실상곡 1, 유곡청성곡 1, 강천성곡 1이다. 극종이 지은 7곡은 지금 전하지 않는다.[25]

신라의 악기와 악곡에 대해 전하는 내용이다. 야담에 따르면, 옥보고는 琴을 만들고, 그 연주곡 36曲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면, 그가 만든 玄琴[26]은 유물로 전해지지만, 악곡은 하나도 전승되지 못했다. 다만 최치원이 옥보고에게 영향을 받아 伽倻琴을 만들었으며,[27] 그 노래 1곡이 조선 후기까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야기에서 명확한 것은 옥보고의 실존 사실뿐이다.

『금계필담』에 수록된 옥보고 관련 내용은 역사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그는 지리산 운상원에 들어가 50년간 琴

三十六曲, 舞玄鶴於庭. 我東玄琴, 卽其遺制, 而曲則無傳. 崔孤雲致遠, 嘗受仙訣於玉寶高, 來往伽倻山, 作伽倻琴, 至今傳於世, 只有<步虛詞>一曲.

25) 金富軾, 『三國史記』 卷32, 雜志 1, 樂條. 羅人沙飡慕永子玉寶高, 入地理山雲上院, 學琴五十年, 自製新調三十曲. … 安長傳其子克相·克宗, 克宗制七曲, 克宗之後, 以琴自業者, 非一二. … 玉寶高所制三十曲, 上院曲一, 中院曲一, 下院曲一, 南海曲二, 倚嵓曲一, 老人曲七, 竹庵曲二, 玄合曲一, 春朝曲一, 秋夕曲一, 吾沙息曲一, 鴛鴦曲一, 遠岾曲六, 比目曲一, 入實相曲一, 幽谷淸聲曲一, 降天聲曲一. 克宗所製七曲, 今亡.

26) 金富軾, 『三國史記』 卷32, 雜志 1, 樂條. 玄琴之作也. 新羅古記云, "初, 晉人以七絃琴, 送高句麗. 麗人雖知其爲樂器, 而不知其聲音及鼓之之法, 購國人能識其音而鼓之者, 厚賞. 時, 第二相王山岳, 存其本樣, 頗改易其法制而造之, 兼製一百餘曲, 以奏之. 於時, 玄鶴來舞, 遂名玄鶴琴, 後但云玄琴."

27) 과거 신라에서 일본으로 전해져 현재 奈良市 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는 현악기는 伽倻琴이 아니라 新羅琴이라는 연구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김성혜, 「정창원 신라금과 관련 유물 연구」, 『신라문화』 제50집(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7), 83면.

을 연구한 끝에 30개 악곡을 새로 지었다고 하는데, 이는 야담에서 36곡을 지었다고 하는 말과 어긋난다. 뒤이어 옥보고에서 후대로 악곡이 전승된 과정과 人名을 상세히 기록하고, 30곡의 제목과 편수를 하나하나 나열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성을 확보하였다. 이처럼 구연으로 전해진 야담의 내용은 역사적인 기록에 비해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겠다.

그럼에도『금계필담』은 조선 후기까지 전해진 신라의 풍속에 대해 살필 수 있는 자료다. 예컨대 신라의 불교 전래와 사찰의 창건 설화를 담아내고, 세시풍속에서 정월 대보름에 먹는 약밥의 출현에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내고, 신라의 음악과 악기 및 악보 등에 관한 전승을 기록했다. 이러한 내용은 역사서와 비교하여 신뢰도가 낮지만, 이는 구연전승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인 듯하다. 그러나 본장에서 필자가 주목한, 구연으로 전승된 야담이 조선에 전해준 신라의 풍속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2.2. 史書에 기록된 신라의 인물

우리나라 고대의 역사적 사실과 설화적 허구를 기록한『삼국사기』와『삼국유사』에는 수많은 인물이 생전에 남긴 업적과 사후에 벌어진 奇行異蹟이 담겨 있다.[28] 특히 이야기는 신라인에 집중되어 있으며, 왕·승려·문장가·異人·명필·화가 등 다양한 인물의 생애와 활동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 후기 야담에도 고스란히 드러

28) 특히,『삼국유사』에는 우리나라 고대 설화가 다수 실려 전하는데, <居陀知>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이는 흥미로운 話素로 야담에 전승되어『어우야담』에서 <火砲匠> 이야기로 엮어졌으며, 그에 대한 연구논문도 발표되었다. 전기웅,「『삼국유사』소재 '眞聖女大王居陀知'조 설화의 검토」,『한국민족문화』제38집(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217-251면; 이채경,「『三國遺事』와 스토리텔링 - 동서양 이야기의 비교를 중심으로」,『국제언어문학』제39집(국제언어문학회, 2018), 257-289면.

나는데,『금계필담』에 채록된 신라 인물의 이야기는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과 서로 교차되기도 한다.

2.2.1. 문장가 薛聰(설총의 花王戒)

다음은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와 그 아들 설총에 관한 이야기다.

> 元曉大師는 신라 神文王 때 神僧으로, 왕이 무척 예우하였다. 원효가 일찍이 노래하기를, "누가 도끼자루[정권] 설치를 허락하나, 내가 잘라서 天柱를 세우리라."라고 하니, 왕이 그것을 듣고 말했다. "이 禪師가 귀부인을 얻어 귀한 자식을 낳고 싶다고 말하는구나. 나라에 大賢이 있으면 그보다 더 이로울 게 없도다." 당시 瑤石宮에 왕족 가운데 새로 과부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宮吏를 보내 원효를 찾아보라고 했다. 원효가 남산에서 내려오다가 궁리를 만나자, 榆橋를 지나다가 일부러 시냇물에 떨어졌다. 궁리가 부축해 일으켜 궁중에 도착하여 옷을 말리느라 유숙했는데, 과부에게 과연 태기가 있다가 아들을 낳았으니, 바로 薛聰이었다.[29]

> 설총은 태어나면서 經史에 博通하여 方言으로 九經의 뜻을 풀이하였고, 또 俚語로 吏文을 만들었으니, 지금 관부에서 쓰는 문자가 그것이다. 왕이 일찍이 한가로울 때 설총을 불러 말하기를, "그대가 異人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나를 위해 진설해 보시오."라고 하니, 설총이 이에 <花王傳>을 지어 왕을 풍자하였으며, 대개 그 내용은 이러하다. "花王이 처음 왔을 때, 한 佳人이 있어 이름은 '薔薇'였고, 붉은 얼굴에 하얀 치아 등 요염한 자태로 사람을 미혹시켜 천침코자 하였다. 또 한

29) 徐有英,『錦溪筆談』下. 元曉大師, 新羅神文王時神僧也, 王甚禮焉. 元曉嘗唱歌云, '誰許設斧柯, 我斫支天柱.' 王聞之曰, "此師欲得貴婦, 產貴子之謂也, 國有大賢, 利莫大焉." 時瑤石宮, 有宗室新寡, 王敕宮吏, 覓元曉, 自南山來, 遇宮吏, 過榆橋, 佯墮川中, 吏扶起, 至宮中, 曬衣因留宿, 寡果有娠生子, 卽薛聰也.

丈夫가 있어 이름이 '白頭翁'으로, 포의에 혁대를 하고 구부정하게 걸어서 앞으로 나와 말했다. '무릇 임금된 자는 누구나 노성한 자를 가까이 하면 흥하고, 요염한 자를 가까이 하면 망합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슬퍼져서 말하기를, '청컨대 그대의 글로써 여러 신하의 경계로 삼겠소.'라고 하며, 드디어 설총을 발탁하여 높은 관직을 주었다. 고려조에 이르러 弘儒侯에 봉하고 文廟에 從祀하였으니, 우리나라 학문 부흥은 설총에게서 비롯되었다.[30]

위 야담에서 전반부는 원효대사가 요석공주와 結緣하여 설총이 태어난 과정을 대략 기술한 것이다. 원효가 왕에게 자기 뜻을 唱歌로 전하고, 일부러 물에 빠져 요석궁에서 留宿하는 등은 결국 설총을 얻기 위해 의도된 言行이었다. 이러한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사랑 이야기는 『삼국사기』에는 실려 있지 않으며,[31] 『삼국유사』에는 원효의 탄생 祕話와 아울러 두 사람의 결연 과정이 간략히 소개되었다.[32]

야담 속 후반부의 내용은 설총이 새로운 문자 吏讀를 만들고, 신문왕에게 <花王戒>[33]를 지어 올렸다는 데 주목하였다. 설총의 문학적 기

30) 徐有英, 『錦溪筆談』 下. 生而博通經史, 以方言解九經義, 又以俚語製吏文, 今行于官府者, 是也. 王嘗燕居進聰曰, "子有異聞, 爲我陳之." 聰乃作<花王傳>, 以諷王, 蓋其書曰, "花王之始來也, 有一佳人, 名薔薇, 朱顔皓齒, 妖艶迷人, 願薦枕. 又有一丈夫, 名曰'白頭翁', 布衣革帶, 傴僂而前曰, '凡爲君者, 莫不親近老成而興, 昵比妖艶而亡.' 王聞之愀然曰, '請書諸紳以爲戒.'" 遂擢聰爲高秩. 至麗朝, 封弘儒侯, 從祀文廟, 我東興學, 自聰始.

31) 金富軾, 『三國史記』 卷46, 列傳 6, 薛聰條. 薛聰, 字聰智, 祖談捺奈麻, 父元曉. 初爲桑門, 淹該佛書, 旣而返本, 自號小性居士. 聰性明銳, 生知道術. 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 又能屬文, 而世無傳者. 但今南地, 或有聰所製碑銘, 文字缺落不可讀, 竟不知其何如也.

32) 一然, 『三國遺事』 卷4, 義解 5, <元曉不羈>. 師嘗一日風顚唱街云, '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 人皆未喩. 時, 太宗聞之曰, "此師殆欲得貴婦, 産賢子之謂也. 國有大賢, 利莫大焉." 時, 瑤石宮有寡公主, 勅宮吏覓曉引入. 宮吏奉勅將求之, 已自南山來, 過蚊川橋, 遇之, 佯墮水中濕衣袴. 吏引師於宮, 褫衣曬晛, 因留宿焉, 公主果有娠, 生薛聰. 聰生而睿敏, 博通經史, 新羅十賢中一也. 以方音通會華·夷方俗物名, 訓解六經文學, 至今海東業明經者, 傳受不絶.

33) <화왕계>는 꽃을 의인화한 우언작품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假傳體문학이라 평가된다. 본래 제목이 없던 것을 『東文選』에는 <諷王書>라고 썼으며, 『금계필담』에는 <花王傳>이라고 적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화왕계>라고 부르게 되었다.

량이 고스란히 드러난 <화왕계>의 창작 배경과 그 내용은 『삼국사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만,[34] 『삼국유사』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원효가 세상을 떠난 뒤, 설총이 원효의 塑像을 만들고 芬皇寺에 안치한 다음 예배를 드릴 때 소상이 돌아보았다는 이야기가 첨부되었다.[35]

요컨대 『금계필담』에 실린 위 이야기는 신라의 승려 원효대사와 요석공주 그리고 문장가 설총을 다루며, 그들의 결연과 탄생 및 업적(불교 행적과 문학 작품 포함) 등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두 역사서에 번갈아 실려 있는데, 야담과 역사 속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축약 또는 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야담에서는 문장가 설총의 행적과 창작에 관한 이야기를 채록한 것이다.

2.2.2. 성제 眞平王(진평왕의 玉帶)

다음은 하늘이 내려준 옥대를 받은 진평왕의 이야기다.

> 眞平王 원년에 어떤 神人이 궁궐 뜰에 내려와 왕에게 玉帶를 주므로 왕이 무릎을 꿇고 그것을 받아 郊廟에서 크게 제사를 지내니, 모두 감복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찬송하는 詩를 지었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구름 밖 하늘이 내린 옥대를 두르니, 왕의 은혜와 곤룡포 우아함이 서로 어울리네. 우리 임금 이때부터 몸 더욱 무거워지니, 내일 아침엔 쇠로 돌계단을 바로잡아야 하겠네.' 신라가 고려 태조와 交聘의 예를 표할 때, 고려 태조가 신라 사신 金律에게 물었다. "듣건대 너희 나라에 聖帝帶가 있다는데, 지금도 보존하고 있느냐?" 김률은 모른다고

34) 金富軾, 『三國史記』 卷46, 列傳 6, 薛聰條. 神文大王, 以仲夏之月, 處高明之室, 顧謂聰曰, "今日, 宿雨初歇, 薰風微凉, 雖有珍饌哀音, 不如高談善謔, 以舒伊鬱. 吾子必有異聞, 盍爲我陳之?" 聰曰, "唯. 臣聞昔花王之始來也, 植之以香園, 護之翠幕, 當三春而發艷, 凌百花而獨出. … 花王曰, '吾過矣, 吾過矣!'" 於是, 王愀然作色曰, "子之寓言, 誠有深志, 請書之, 以爲王者之戒." 遂擢聰以高秩.

35) 一然, 『三國遺事』 卷4, 義解 5, <元曉不羈>. 既入寂, 聰碎遺骸, 塑眞容, 安芬皇寺, 以表敬慕終天之志. 聰時旁禮, 像忽廻顧, 至今猶顧矣.

대답하였으며, 돌아가서 敬順王에게 아뢰고 조정 대신들에게 두루 물었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 皇龍寺 어느 老僧이 말하기를, "일찍이 들으니 진평왕 때는 이 옥대에 감복하였으며, 역대 보물로 전해져 南庫에 수장되어 있다."라고 하여, 왕이 드디어 열어보니, 비바람이 크게 일며 낮인데도 세상이 어두워졌다. 이에 좋은 날을 가려 목욕재계한 뒤에 비로소 그것을 얻어 사신을 보내 고려 태조에게 바쳤다. 대개 진평왕은 聖骨이었으므로 '聖帝帶'라고 불렀다.[36]

이른바 진평왕의 옥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금계필담』소재 작품이다. 진평왕은 기골이 장대하고, 식견이 명철했으며,[37] 관제 정비와 불교 진흥 및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독자적인 왕권을 수립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위 야담은 역사서에서 말하는 '天賜玉帶' 내지는 '聖帝帶'를 다루었지만,[38]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면 시종일관 진평왕의 偉容과 天稟에 집중하여 서사가 전개된다.

진평왕의 옥대 이야기는 크게 세 대목으로 나뉜다. 첫째, 진평왕이 하늘에서 내려준 옥대를 받은 것. 둘째, 무거운 옥대를 두르고 궁궐 계단을 오르다가 섬돌이 깨진 것. 셋째, 고려 태조가 성제대(신라 三寶)

36) 徐有英,『錦溪筆談』下. 眞平王元年, 有神人, 降于庭, 授王以玉帶, 王跪而受之, 郊廟大祀, 皆服之. 時人贊頌作詩曰, '雲外天頒玉帶圍, 辟雍龍袞雅相宜. 吾君自此身彌重, 準擬明朝鐵作堋.' 及新羅與麗太祖交聘時, 麗太祖問新羅使金律曰, "聞爾國有聖帝帶, 至今尙存否?" 律對不知, 還告于敬順王, 遍問廷臣, 無有知者. 有皇龍寺老僧曰, "曾聞眞平王時, 服此帶, 歷代傳寶, 藏在南庫矣." 王遂開視, 風雨大作, 晝晦冥, 乃擇日齋沐然後, 始得之, 遣使獻于麗祖. 蓋眞平王聖骨, 故云聖帝帶.

37) 金富軾,『三國史記』卷4, 新羅本紀 4, 眞平王條. 王生有奇相, 身體長大, 志識沈毅明達.

38) 진평왕의 옥대 이외에도 신라에는 神文王의 옥대가 있었는데, 신문왕의 옥대는 동해의 神龍이 바친 것으로, 장식을 떼어 祇林寺 계곡에 던지자 龍으로 승천했다. 一然,『三國遺事』卷2, 紀異 2, <萬波息笛>. 王御感恩寺宿, 明日午時, 竹合爲一, 天地震動, 風雨晦暗七日. 至其月十六日, 風霽波平, 王泛海入其山, 有龍奉黑玉帶來獻. … 王宿感恩寺, 十七日, 到祇林寺西溪邊, 留駕晝饍, 太子理恭[卽孝昭大王], 守闕, 聞此事, 走馬來賀, 徐察奏曰, "此玉帶諸窠, 皆眞龍也." 王曰, "汝何以知之?" 太子曰, "摘一窠沈水示之." 乃摘左邊第二窠沈溪, 卽成龍上天, 其地成淵, 因號龍淵. 이채경,「문무왕 신격화의 변전 양상과 현대적 의의 –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한국문학논총』제68집(한국문학회, 2014), 134면.

의 보존 유무를 묻는 것. 그런데 세 대목은 모두 진평왕의 特長을 부각시키는 데 소재를 활용한다. 첫째 대목에서 진평왕은 옥대를 즉위 원년에 받았으며, 이는 그가 타고난 王者였음을 지칭한다.[39] 또 둘째 대목에서는 진평왕이 건장한 체구에 무거운 옥대까지 둘렀으니, 즉위 초에 깨진 궁궐 계단을 더더욱 경계로 삼아야 함을 노래하였다.[40] 마지막 셋째 대목에서는 신라가 고려에 교빙의 예를 표할 때, 경순왕이 고려 태조에게 신라 삼보 중 하나인 진평왕의 옥대를 바침으로써 왕권을 이양하는 장면을 형상화한 것이다.[41]

이처럼 역대 문헌에 성명이 거론된 인물은 많고, 그 중에는 왕으로서 국권을 통치한 사례도 있다. 『금계필담』의 저자는 수많은 신라 왕 가운데 진평왕의 이야기를 채록하였으며, 이는 조선 후기에도 민간에서 두루 읽힌 문헌자료를 통해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예상된다.[42] 다만 역사서에는 '천사옥대'라고 언급한 것을 야담에서는 '성제대'라고도 불렀음을 竝記하였다. 그런데 이 또한 진평왕이 성골 출신의 신라왕

39) 一然, 『三國遺事』 卷1, 紀異 1, <天賜玉帶>. 卽位元年, 有天使降於殿庭, 謂王曰, "上皇命我傳賜玉帶, 王親奉跪受." 然後, 其使上天. 凡郊廟大祀皆服之.

40) 一然, 『三國遺事』 卷1, 紀異 1, <天賜玉帶>. 天賜玉帶[淸泰四年丁酉五月, 正承金傅獻鐫金粧玉排方腰帶一條, 長十圍, 鐫銙六十二, 曰是眞平王天賜帶也, 太祖受之, 藏之內庫.] 第二十六白淨王, 諡眞平大王, 金氏, 大建十一年己亥八月卽位. 身長十一尺, 駕幸內帝釋宮[亦名天柱寺, 王之所創], 踏石梯, 三石並折, 王謂左右曰, "不動此石, 以示後來." 卽城中五不動石之一也.

41) 金富軾,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 12, 景明王條. 五年, 春正月, 金律告王曰, "臣往年奉使高麗, 麗王問臣曰, '聞新羅有三寶, 所謂丈六尊像·九層塔幷聖帶也. 像塔猶存, 不知聖帶今猶在耶.' 臣不能答." 王聞之, 問群臣曰, "聖帶, 是何寶物耶?" 無能知者. 時, 有皇龍寺僧年過九十者曰, "予嘗聞之, 寶帶, 是眞平大王所服也, 歷代傳之, 藏在南庫." 王遂令開庫, 不能得見, 乃以擇日齋祭, 然後見之. 其帶粧以金玉甚長, 非常人所可束也.
一然, 『三國遺事』 卷1, 紀異 1, <天賜玉帶>. 後, 高麗王將謀伐羅, 乃曰, "新羅有三寶不可犯, 何謂也?" 皇龍寺丈六尊像, 一, 其寺九層塔, 二, 眞平王天賜玉帶, 三也, 乃止其謀. 讚曰, '雲外天頒玉帶圍, 辟雍龍袞雅相宜. 吾君自此身彌重, 准擬明朝鐵作墀.'

42) 임완혁 교수는 『금계필담』에 나타난 서사체는 객관적인 사실 및 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글쓰기로, 구연 및 기록 과정에서 서사의지가 상당히 약화된 모습을 보이며, 이는 야사·잡록 성격의 글쓰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본고에서 필자는 이를 문헌자료에서 이야기를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임완혁, 「19세기말 야담의 변모에 대한 일고찰 -『금계필담』에 수용된 전대 작품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제13권(한국한문교육학회, 1999), 396면.

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저자의 부록으로 파악된다.

2.2.3. 선인 處容郎(처용랑의 樂舞)

다음은 인간과 神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라 처용에 얽힌 이야기다.

> 憲康王이 당시 鶴城에서 노닐다가 開雲浦 月明港에 이르렀다. 어떤 異人이 자칭 '處容翁'이라고 하며 왕 앞에 나아가서 노래하고 춤추는데, 조개가 입을 벌리고 솔개가 날개를 펄럭이는 듯 모습이 놀라웠다. 왕궁에 머문 지 한 달 남짓 되었을 때, 또 네 神人이 스스로 푸른 바다 가운데서 왔노라고 말하는데, 의관과 모습이 處容仙人과 다를 바 없었다. 때때로 소매를 펼쳐 춤을 추고 노래는 낭랑하게 들을 만하여, 당시 사람들이 상서로운 곳이라고 여겼으나,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어디로 떠나갔는지 알 수 없었다. … 우리 조선 世宗은 處容舞를 가지고 五方을 응용한 雅樂을 만들었다.[43]

위 야담에는 익히 알려진 處容歌(또는 處容舞)에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다. 즉, 처용이 외출한 사이에 疫神이 침입하여 처용의 아내를 범하자, 귀가한 처용이 그 모습을 보고는 詩歌를 지어 부르며 춤을 추었고, 이에 역신이 感服하여 물러갔다는 이야기다.[44] 헌강왕 이후 처용의 형상은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辟邪進慶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져 민

43) 徐有英,『錦溪筆談』下. 憲康王, 時游鶴城, 至開雲浦月明港. 有異人, 自稱處容翁, 詣王前, 歌舞貝齒蔦肩, 形容可駭. 留王宮月餘, 又有四神人, 自言從碧海中來, 衣冠狀貌, 與處容仙人無異. 時時張袖舞蹈, 而歌瀏亮可聽, 時以爲瑞居, 未幾, 忽不知去處. … 我朝世宗, 作處容舞, 以應五方用之雅樂.

44) 一然,『三國遺事』卷2, 紀異 2, <處容郎望海寺>. 其一子隨駕入京, 輔佐王政, 名曰處容. 王以美女妻之, 欲留其意, 又賜級干職. 其妻甚美, 疫神欽慕之, 變爲人, 夜至其家, 竊與之宿. 處容自外至其家, 見寢有二人, 乃唱歌作舞而退. 歌曰,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可. 入良沙寢矣見昆, 脚烏伊四是良羅. 二肹隱吾下於叱古, 二肹隱誰支下焉古. 本矣吾下是如馬於隱, 奪叱良乙何如爲理古.' 時, 神現形, 跪於前曰, "吾羨公之妻, 今犯之矣. 公不見怒, 感而美之, 誓今已後, 見畫公之形容, 不入其門矣."

간신앙으로 확대되었다[因此, 國人門帖處容之形, 以僻邪進慶]고 전한다.

그런데 『금계필담』의 저자는 처용의 전혀 다른 모습에 주목하였다. 『삼국유사』가 전반부에서 처용과 역신의 이야기를 소재로 처용가의 창작과 처용 형상의 의미를 다루었다면, 야담에서는 처용의 異人的 면모와 처용무의 동작을 형상화하였다. 또 살펴보면, 『삼국유사』는 후반부에서 鮑石亭에 행차한 憲康王 앞에 나타나 춤을 춘 山神이 처용의 또 다른 현신이었음을 덧붙여 사건의 의미를 亡國으로 견인하였다.[45]

이러한 역사서 속 후반부 내용은 야담에서 또 다른 형태로 서사화되었다. 처용옹이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은 조개가 입을 벌려 노래하고 솔개가 날개짓 하여 춤추듯 했으므로 바라본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런데 야담 속 처용 異人과 네 神人의 노래와 몸짓을 본 당시 사람들은 잠시나마 그것을 상서롭게 여겼으나, 처용과 신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이는 역사서에서 나라사람들이 나쁜 징조를 상서로운 것으로 착각하여 歡樂에 탐닉함으로써 亡國을 초래했다고 기술한 내용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해석된다.

2.2.4. 명필 金生(김생의 行草)

다음은 신라의 명필로 중국에까지 명성을 떨친 김생의 이야기다.

> 우리나라 명필은 모두 金生을 제일로 꼽지만, 나는 그의 眞跡을 보

45) 一然, 『三國遺事』 卷2, 紀異 2, <處容郎望海寺>. 又幸鮑石亭, 南山神現舞於御前, 左右不見, 王獨見之. 有人現舞於前, 王自作舞, 以像示之. 神之名或曰祥審, 故至今國人傳此舞, 曰御舞祥審, 或曰御舞山神. 或云, 旣神出舞 審象其貌, 命工摹刻, 以示後代, 故云象審. 或云霜髯舞, 此乃以其形稱之. 又幸於金剛嶺時, 北岳神呈舞, 名玉刀鈐. 又同禮殿宴時, 地神出舞, 名地伯級干. 語法集云, "于時, 山神獻舞, 唱歌云, 智理多都波都波等者, 盖言以智理國者, 知而多逃, 都邑將破云謂也." 乃地神·山神知國將亡, 故作舞以警之, 國人不悟, 謂爲現瑞, 耽樂滋甚, 故國終亡.

지 못했다.『삼국유사』에는 이렇게 적었다. 김생은 어려서부터 글씨를 잘 썼으며, 行書·草書·隸書가 가장 뛰어났다. 고려 때 학사 王灌이 사신 임무를 받들고 중국에 들어가 김생의 行草를 꺼내 보여주었더니, 여러 학사가 모두 크게 놀라며 "외국에 이런 王羲之[右軍]의 필적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소."라고 말했다. 왕관이 말하기를, "이는 우군의 필적이 아니라 바로 신라 김생의 글씨요."라고 하니, 여러 학사가 서로 귀하고 소중히 여겨 마침내 명성이 중국에 퍼졌다. 영남 金烏山 아래에 昌林寺碑가 있는데, 자획이 매우 예스럽고 우군의 전형적인 書體를 갖추고 있어 아무리 중국의 유명 刻手라도 그것을 능가하지 못했다고 한다.[46)]

김생은 부모가 미천하여 가문의 내력을 알 수 없다. 景雲 2년(711)에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글씨를 잘 썼다. 평생 다른 기예는 닦지 않았고, 여든을 넘긴 나이에도 붓을 잡고 쉬지 않았으며, 隸書와 行草가 모두 入神의 경지에 이르렀다. 지금도 종종 眞蹟이 남아 있어 학자들이 그것을 보배로 여기며 전한다. 崇寧 연간(1102-1106)에 학사 洪灌이 進奉使를 따라 宋나라에 들어가 변경에 묵었다. 당시 한림대조 楊球와 李革 등이 황제의 칙서를 받들고 사관에 와서 그림 족자에 글씨를 썼다. 홍관이 그들에게 김생이 쓴 행초 한 권을 보이니, 두 사람이 크게 놀라 말했다. "오늘 왕희지의 친필을 보게 될 줄 몰랐소." 홍관이 말하기를, "아니오. 이것은 신라인 김생이 쓴 것이오."라고 하니, 두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다. "천하에 왕희지가 아니면 어찌 이런 妙筆이 있겠소?" 홍관이 여러 번 말했지만, 그들은 끝내 믿지 않았다. 또 姚克一이

46) 徐有英,『錦溪筆談』下. 東國名筆, 皆以金生爲第一, 然余不得見眞跡. 三國遺事, 金生自幼善書, 其行·草·隸書, 最絶奇. 高麗時, 學士王灌, 奉使入中國, 出金生行·草示之, 諸學士, 皆大驚曰, "不圖外國有此右軍筆跡." 灌曰: "此非右軍筆跡, 乃新羅人金生書也." 諸學士, 互相寶玩, 遂名播中國. 嶺南金烏山下, 有昌林寺碑, 字畫甚古, 有右軍典型, 雖唐人名刻, 無以過之云.

라는 사람은 벼슬이 시중 겸 시서학사에 이르렀는데, 필력이 좋아 率更 歐陽詢의 필법을 터득하였다. 비록 김생에게는 못 미쳤지만, 역시 奇品이었다.[47]

위 야담은 처음부터 역사서의 기록을 참고했음을 밝히고 있다. 『금계필담』의 저자는 신라의 김생을 우리나라 최고 명필[48]로 꼽으면서 『삼국유사』에 나온 이야기를 인용한다고 적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삼국유사』가 아니라 『삼국사기』에 실려 전한다. 게다가 야담에서 김생의 眞筆을 중국에 가져가서 황제의 칙서를 받들고 찾아온 송나라 관리들을 놀라게 한 사람을 王灌이라고 적었는데, 『삼국사기』에 적힌 인명은 洪灌[49]으로, 확인 결과 이 또한 역사서가 야담보다 정확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금계필담』의 저자는 역사서에 기록된 신라의 인물에 주목하였으나, 역사서는 물론 거기에 기록된 고려 학사의 이름을 착각하여 내용상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이는 저자가 관련 내용을 직접 읽고도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잘못 적은 기록을 그대로 수용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書名과 人名이 서로 유사한 데서 기인한 문헌전승 과정의 오류라고 파악된다.

47) 金富軾, 『三國史記』 卷48, 列傳 8, 金生條. 金生, 父母微, 不知其世系. 生於景雲二年, 自幼能書, 平生不攻他藝, 年踰八十, 猶操筆不休. 隸書行草皆入神, 至今, 往往有眞蹟, 學者傳寶之. 崇寧中, 學士洪灌隨進奉使入宋, 館於卞京. 時翰林待詔楊球·李革, 奉帝勅至館, 書圖簇. 洪灌以金生行草一卷, 示之, 二人大駭曰, "不圖今日得見王右軍手書." 洪灌曰, "非是, 此乃新羅人金生所書也." 二人笑曰, "天下除右軍, 焉有妙筆如此哉?" 洪灌屢言之, 終不信. 又有姚克一者, 仕至侍中兼侍書學士, 筆力遒勁, 得歐陽率更法. 雖不及生, 亦奇品也.

48) 조선 후기의 문신 洪良浩는 <題尹白下淳書軸>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대 서체와 명필을 정리하면서 尹淳의 서체가 신라 金生 이하 大家들의 뒤를 잇는다고 칭송했다. 이외에도 김생은 명실상부 '동방서체의 鼻祖'로 평가되었다. 이채경, 「耳溪 洪良浩의 학문자세와 학적성취 - 新羅 관련 碑文·祭文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제46집(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15), 293면.

49) 洪灌(? -1126) : 고려 중기의 문신이자 서예가. 본관 南陽. 자 無黨. 시호 忠平. 과거 급제 후 관직에 나아가, 왕명으로 集祥殿 편액을 비롯하여 會慶殿 병풍에 『書經』의 無逸篇을 썼으며, 寶文閣·淸讌閣 등의 편액도 그의 글씨라고 전한다. '李資謙의 亂'에 仁宗을 侍衛하다가 拓俊京에게 피살되어 功臣에 녹훈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위 야담에서 저자가 주목한 것은 김생의 뛰어난 필적이었다. 그것은 왕희지의 서체에 비견될 만큼 훌륭해서 송나라 학사들마저 착각할 정도로 흡사했다. 요컨대 그는 역사서에서처럼 정확한 연대와 인명을 거론하거나, 굳이 '妙筆'이라느니 '奇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고, 게다가 비록 김생의 친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김생이 신라인으로서 중국에까지 명성을 떨친 사실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2.5. 화가 率居(솔거의 老松圖)

다음은 신라의 유명 화가 솔거에 관련된 짤막한 이야기다.

> 率居는 신라의 승려로, 그림을 잘 그렸다. 일찍이 皇龍寺에서 벽에 老松을 그렸는데, 소나무 가지와 껍데기를 까마귀와 솔개가 멀리서 보고 종종 날아 들어와 앉으려다가 땅에 떨어지곤 했다. 세월이 오래 되어 색이 바래자, 거처하던 승려가 丹靑을 보완했는데, 까마귀와 솔개가 다시는 오지 않았다.[50]

> 솔거는 신라인으로, 출신이 미천하여 그 家系를 기록하지 않는다. 태어나면서 그림을 잘 그렸다. 일찍이 황룡사 벽에 노송을 그렸는데, 몸통과 줄기가 비늘 같았으며, 가지와 잎이 구불구불하여 까마귀, 솔개, 제비, 참새 등이 종종 멀리서 보고 날아들다가 벽화에 이르러서는 벽에 부딪혀 떨어지곤 했다. 세월이 오래 되어 색이 바래자, 절의 승려가 단청으로 덧칠을 하였더니, 까마귀와 참새가 다시는 오지 않았다. 또 경주 芬皇寺의 觀音菩薩像과 진주 斷俗寺의 維摩像은 모두 그의

50) 徐有英,『錦溪筆談』下. 率居, 新羅僧也, 善畫. 嘗於皇龍寺, 畫老松於壁, 枝幹鱗皺, 烏鳶望之, 往往飛入, 蹬蹭墜地. 歲久色暗, 居僧以丹靑補之, 烏鳶不復至.

필적인데, 세상에 神畵라고 전해진다.[51]

앞서 우리나라 글씨[書體]를 논할 때 최고의 찬사를 받는 사람이 김생이었다면, 그림[繪畵]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손꼽히는 사람이 솔거다. 또 솔거를 언급할 때면 항상 등장하는 소재가 이른바 '皇龍寺 老松圖'다. 솔거의 벽화는 당시 신라인들의 칭송을 넘어 微物[鳥類]의 눈마저 현혹시킬 정도로 뛰어난 수준이었다고 전한다. 게다가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 희미해진 벽화에 단청을 덧칠했더니 새들이 다시는 날아들지 않았다는 데서 頂點을 이룬다.

그런데 위 야담은 솔거의 타고난 재능에 관련된 핵심 사건을 위주로 『삼국사기』의 기록을 간략하게 옮겨 적었다. 예컨대 역사서에 '生而善畵'를 야담에는 '善畵'로, '體幹鱗皴, 枝葉盤屈'을 '枝幹鱗皴'으로, '烏鳶燕雀, 往往望之飛入'을 '烏鳶望之, 往往飛入'으로 축약한 것이다. 심지어 '歲久色暗'과 '烏雀不復至'는 兩者에 똑같이 쓰여, 구연 보다는 기록을 통한 견문과정에 저술된 게 확실하다. 반면 『삼국사기』에서 고려시대 사람들이 '神畵'라고 평가한 경주 분황사의 관음보살상과 진주 단속사의 유마상에 대한 이야기는 『금계필담』에 빠져 있다.

그럼에도 『금계필담』은 조선 후기까지 전해진 신라의 인물에 대해 살필 수 있는 자료다. 예컨대 神僧으로 알려진 원효와 뛰어난 문장가 설총, 神人에게서 하늘이 내려준 옥대를 받은 진평왕, 異人으로 왕 앞에서 노래와 춤을 선보인 처용, 이밖에도 우리나라 最高의 명필 김생과 우리나라 最古의 畵僧 솔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라 인물의 이야기를 기록했다.[52] 이러한 야담은 역사서를 참고하여 기록하면서 실

51) 金富軾, 『三國史記』 卷48, 列傳 8, 率居條. 率居, 新羅人, 所出微, 故不記其族系. 生而善畵, 嘗於皇龍寺壁畵老松, 體幹鱗皴, 枝葉盤屈, 烏鳶燕雀, 往往望之飛入. 及到, 蹭蹬而落. 歲久色暗, 寺僧以丹靑補之, 烏雀不復至. 又慶州芬皇寺觀音菩薩·晉州斷俗寺維摩像, 皆其筆蹟, 世傳爲神畵.

52) 『금계필담』의 이런 史實性 지향은 필기류의 서술 방식에 가까운데, 번성기 야담이

제 사건과 달라지거나 내용이 축약되는 등 문헌전승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장에서 필자가 주목한, 문헌으로 확인된 야담이 역사서에 기록된 신라의 인물과 그들의 特長을 다루었음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3. 前代 야담 속 신라 이야기

前章에서 다룬 신라 이야기 이외에도 여타 야담집에는 신라(또는 경주) 관련 이야기가 종종 발견된다. 본장에서는 전대 야담집 『天倪錄』[53]에 기록된 이야기 몇 편을 아울러 살펴보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금계필담』이 야담사적으로 후대(19세기 후반)에 출현한 야담집이라면, 『천예록』은 전대(18세기 전반)에 저술된 야담집이다. 앞서 분석한 19세기 후반의 야담을 기반으로 이제 18세기 전반의 야담과 비교하며 여기서는 신라의 이야기가 시대별 야담집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본다.[54]

먼저 삼국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룬 김유신 장군 이야기다.

지닌 창의성을 동반한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은 후기 야담의 한계로 평가된다. 임완혁, 「19세기말 야담의 변모」, 『구연 전통과 서사』(태학사, 2008), 265면.

53) 『天倪錄』은 조선 후기의 문신 任堕(1640-1724)이 저술한 야담집으로, 당시 야담 가운데 특이하고 초현실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엮어졌다. 그 중에는 역사 속 실존인물도 다수 등장하지만, 흥미로운 현상이나 奇行異蹟 등은 실제사건이라고 믿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럼에도 일부 이야기는 후대에 끊임없이 전승되었으며, 또 신라 및 경주를 소재로 한 야담이 다수 채록되어 있어 비교 대상으로 정했다.

54) 『천예록』의 작자와 저작연대 및 서사적 특징 등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천예록』을 비롯해 18세기 일부 야담집에 채록된 신라 및 경주 이야기에 대해서도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진재교, 「『天倪錄』의 作者와 著作年代」, 『서지학보』 제17집(한국서지학회, 1996), 41-68면; 이현주, 「『天倪錄』 所載 神異談의 서사와 미적 특질」(성균관대 석사논문, 2005) ; 이채경, 「야담집 소재 신라 및 경주 이야기 연구 -『天倪錄』, 『雜記古談』, 『東稗洛誦』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제41집(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13), 353-382면.

西嶽書院은 경주의 서부 西岳 아래에 있다. 신라 弘儒侯 薛聰, 開國公 金庾信, 文昌侯 崔致遠을 제향하는 곳이다. 天啓 연간(1621-1627)에 경주부 儒林會에서 편액을 청하고자 논의가 벌어졌다. … 내가 전에 경주를 유람한 적이 있었는데, 서악서원 아래를 지나다가 서원 문 밖에서 말에게 꼴을 먹였다. 그 때 서원의 종[僕]이 이런 故事를 들려주기에 내가 참 이상하게 여겼었다. 하루는 우연히 신라의 역사를 열람해보니,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惠恭王 15년에 홀연 돌개바람이 일어 金庾信의 묘에서 신라 味鄒王의 능으로 불어왔다. 티끌과 안개로 사방이 어두워져 사물을 분간할 수 없었는데, 능 안에서 곡하며 슬프게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혜공왕이 이 사실을 듣고 두려워한 나머지 대신을 파견하여 그 능으로 가서 祭를 올리며 잘못을 빌었다. 김공의 신령함은 이미 역사책에 드러나 있어 비로소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데, 아마도 여기에 근원한 것이었나 보다.[55]

위 야담에서 인용하지 않은 전반부의 내용은 조선 후기 고착화된 성리학의 이념과 모순을 그대로 담고 있다. 경주 유림회에서 서악서원의 편액을 청하는 즈음[56]에 어린 書生이 서악서원에 위패를 모신 설총·김유신·최치원 가운데 武臣인 김유신 장군을 제향에서 빼자고 논의를 시작한다. 조선은 文武의 구별이 엄연한데 서원에서 儒者가 아닌 武將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다가 날이 저물었

55) 任堕, 『天倪錄』, <議黜院享卽被禍>. 西嶽書院, 在慶州府西西岳下, 配享新羅弘儒侯薛聰·開國公金庾信·文昌侯崔致遠. 天啓中, 府儒會議請額. … 余嘗客遊東都, 路過書院下, 秣馬于院門外. 有一院僕, 能說院之故事如此. 余固異之. 一日, 偶閱羅史, **惠恭王十五年, 忽有疾風起, 自庾信墓, 至羅祖味鄒王墓, 塵霧晦冥, 不辨人物, 聞其中若有哭泣悲嘆之聲. 王聞之恐懼, 遣大臣就其墓, 致祭謝過.** 金公之靈異, 史冊已著, 始知其說, 蓋原於此.

56) 『東京志』에 따르면, 서악서원은 명종 16년(1561)에 李楨을 중심으로 한 지역유림의 발의로 창건되었고, 퇴계가 '西岳精舍'라 이름 짓고 직접 글씨를 써서 현판을 달았다. 또 인조 1년(1623)에 崔東彦 등이 상소하여 사액되었으며, 편액은 元振海의 필적이었다고 한다. 덧붙여 서악서원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시 존속한 47개 서원 중 하나다.

다. 그날 밤 꿈에 김유신 장군이 나타나 유자로서 忠孝를 실현한 면모를 변론하며 서생을 호되게 꾸짖고, 결국 꿈에서 혼쭐이 난 서생은 이튿날 피를 쏟으며 죽고 말았다.[57]

이처럼 비현실적인 내용은 서악서원의 존재와 신라 세 위인의 위패를 모셔놓았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김유신 장군의 풍모를 드높인다. 그리고 이어지는 위 인용문에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에 이른다. 즉, 『천예록』의 저자가 경주를 유람하다가 서악서원의 종[僕]에게 유사한 이야기를 들었고, 우연히 신라의 역사서에서 관련 기록을 찾아 읽은 것이다. 바로 『삼국유사』에 실린 '竹葉軍' 설화[58]가 그것인데, 이로써 김유신 장군의 신령함은 야담과 역사 기록을 넘나들며 전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덧붙이자면,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국난상황에서 나라를 구한 인물에 주목하였으며, 이는 민중에 의해 역사 속 偉人을 찾아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져 구연되었다. 그 중에 대표적 인물이 김유신 장군이었고, 그러한 위인이 조선에도 다시 출현하여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塗炭에 빠진 백성을 구해주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긴 이야기로 기록되었다.

다음 이야기는 경순왕 때 학사 맹도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는 본래 신라 敬順王 때의 학사이다. 집이 金鰲山 서편 기슭에

57) 任堕, 『天倪錄』, <議黜院享卽被禍> 全文 참조

58) 위 인용문에서 밑줄 친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죽엽군의 출현시점이 『금계필담』에는 혜공왕 15년(庚申, 780)으로 나와 있으나, 『삼국유사』에는 대력 14년(己未, 779)으로 기록되었다. 一然, 『三國遺事』 卷1, 奇異 1, <味鄒王竹葉軍>. 越三十七世惠恭王代, 大曆十四年己未四月, 忽有旋風, 從庾信公塚起, 中有一人乘駿馬如將軍儀狀, 亦有衣甲器仗者四十許人, 隨從而來, 入於竹現陵. 俄而, 陵中似有振動哭泣聲, 或如告訴之音. 其言曰, "臣平生有輔時救難匡合之功, 今爲魂魄, 鎭護邦國, 攘災救患之心, 暫無渝改, 往者庚戌年, 臣之子孫無罪被誅, 君臣不念我之功烈, 臣欲遠移他所, 不復勞勤, 願王允之." 王答曰, "惟我與公不護此邦, 其如民庶何? 公復努力如前." 三請三不許, 旋風乃遷. 王聞之懼, 乃遣工臣金敬信, 就金公陵謝過焉, 爲公立功德寶田三十結于鷲仙寺, 以資冥福.

> 자리잡고 있었다. 평소에 매화와 학을 좋아하여 매화를 심고 학을 길렀다. … 그 뒤에 일본에서 승려 義能이 사신으로 왔기에 芬皇寺에서 그를 접반하게 되었다. 의능은 신라 학사들의 詩를 얻어다가 자기네 나라에서 빛을 내려고 했다. 임금께서 내게 詩를 짓도록 명하셨다. … 이후에 鮑石亭에서 노닐며 여러 학사와 시를 짓게 되었다.[59]

위 야담에서 孟道人은 경순왕의 특명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客死했는데, 이후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가 건국되는 바람에 返葬되지 못한 채 역사에서 잊히고 말았다고 한다. 生前에 그는 학사로서 시를 잘 지었고, 평소에는 매화를 심고 학을 기르며 自娛自樂하던 인물이다. 임금이 학사들을 거느리고 후원에서 연회를 베풀거나 妃嬪과 함께 유람할 때면 항상 좌우에서 동행하며 시를 짓곤 했던 것이다.[60]

그런 그의 행위와 업적은 역사서에 실재하지 않으나, 금오산·분황사·포석정 등은 신라의 도읍 경주에서 이름난 곳이었다.[61] 특히, 분황사에서 일본 승려를 接伴하고, 포석정에서 宴會를 즐겼다는 내용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포석정에서 열린 流觴曲水宴은 경순왕의 행적이 아니라 景哀王 때 甄萱이 침입해온 사건으로 확인된다.[62] 그러나 경애왕과 경순왕의 시대가 멀지 않고, 당시 학사들의 역

59) 任堕, 『天倪錄』, <孟道人携遊和詩>. 我本新羅敬順王朝學士, 家在金鰲山西麓, 平生性好梅鶴, 種梅養鶴. … 其後, 日本僧義能, 以使來到, 接於芬皇寺. 義能欲得學士詩, 以貢其國, 王命我賦詩. … 後, 有鮑石亭, 與諸學士賦詩.

60) 任堕, 『天倪錄』, <孟道人携遊和詩> 全文 참조

61)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1, 慶尙道-慶州府. [金鼇山] 南山이라고도 한다. 부의 남쪽 6리에 있다. … [芬皇寺] 부의 동쪽 5리에 있다. 선덕왕 3년에 세웠다. 고려 평장사 韓文俊이 찬술한 和諍國師碑가 있는데, 烏金石이다. … [鮑石亭] 본부 남쪽 7리, 금오산 서쪽 기슭에 있다. 돌을 다듬어 鮑魚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이다. 流觴曲水의 유적이 완연히 남아 있다.

62) 金富軾,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 12, 景哀王條. 秋九月, 甄萱侵我軍於高鬱府, 王請救於太祖, 命將出勁兵一萬往救. 甄萱以救兵未至, 以冬十一月, 掩入王京. 王與妃嬪宗戚, 遊鮑石亭宴娛, 不覺賊兵至, 倉猝不知所爲. 王與妃奔入後宮, 宗戚及公卿大夫士女四散, 奔走逃竄. 其爲賊所虜者, 無貴賤皆駭汗匍匐, 乞爲奴僕而不免. 萱又縱其兵, 剽掠公私財物略盡, 入處宮闕, 乃命左右索王. 王與妃妾數人在後宮, 拘致軍中. 逼令王自盡, 强淫王妃, 縱其下, 亂其妃妾. 乃立王之族弟, 權知國事,

할을 생각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신라 맹도인은 조선 후기까지 역사적 인물로 알려져 人口에 膾炙되었으며, 야담은 당대인들의 역사 인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덧붙이자면, 조선은 후기로 가면서 점차 정치적 오류와 사회적 모순이 두드러졌고, 이는 민중에 의해 역사 속 政事의 得失을 찾아 교훈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져 구연되었다. 그 중에 대표적 사례가 천년왕조 신라의 멸망이었고, 이미 수차례 전란을 겪은 조선에서 그처럼 뼈아픈 결과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로 기록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경주지역에 떠돌던 우스개 이야기를 살펴본다.

> 몇 년 전에 한 문관이 경주 提督官이 되었다. 그는 관아[本府]에 나올 때마다 妓女들을 보면 곰방대로 그들의 머리를 때리며, '사악한 기운'이라고 하거나 '요망한 기운'이라고 하거나 심지어 "사람이 어찌 이런 물건들을 가까이 하겠는가?"라고도 했다. 기녀들은 모두 분하게 여겼고, 府尹도 그를 미워하여 이윽고 기녀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기묘한 꾀로 이 提督을 속이면, 내가 많은 상을 내리겠노라." 그러자 나이 어린 기녀 하나가 그 제의에 응하겠다며 나섰다. … 지금도 경주에서는 '궤짝 제독[櫃提督]'이라며 우스갯거리로 전해지고 있다.[63]

鄕校는 조선시대 각 지방에 설치된 관학기관으로, 宣祖代에는 제독관을 파견하여 향교의 교육을 독려 감독하였다. 당시 제독은 조선

是爲敬順王.

63) 任堕, 『天倪錄』, <提督裸裎出櫃中>. 頃年, 有一文官, 爲慶州提督官. 每到本府, 見妓女, 則必以烟茶竹, 叩擊其頭, 曰'邪氣', 或曰'妖氣', 且曰, "人豈可近此物耶?" 衆妓齊憤, 府尹亦憎之. 乃下令於群妓曰, "有能以奇計瞞此提督者, 將加重賞." 有一年少妓者, 應命而出. … 至今慶州府, 以櫃提督, 爲傳笑之資.

의 핵심유자로서 엄격한 규범과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경주에 파견된 제독관은 남들이 지켜볼 때는 규칙대로 행동했으나, 한순간 인정과 유혹에 휘둘려 자기 원칙과 소신을 망각했다가 평소 그가 업신여기고 경멸하던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한다.[64] 이처럼 지나치게 편협한 관료의식에 사로잡힌 제독관의 위선자적 모습을 이끌어낸 사람은 바로 경주부의 어린 官妓였다.

『천예록』의 저자는 그때까지 경주에는 '궤짝제독'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했으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위 야담에서 주목할 것은 경주가 신라천년고도로서 조선시대까지 명성을 유지했으며, 앞서 살펴본 인용문에서 확인했듯이 임금에게 賜額을 받은 서원을 비롯하여 유명 사찰과 유적지가 편재해 있었다. 시대와 왕조가 달라졌지만, 신라의 인물상은 허구적 인물로 재창조되어 경주지역의 정의로운 府尹과 지혜로운 官妓를 통해 야담으로 구현되었다.

덧붙이자면, 조선은 성리학적 이념이 강화되면서 신분제와 文武 구분에서 오는 차별이 더욱 심해졌고, 이는 민중에 의해 위선과 모순을 擔持한 어리석은 관리의 이야기로 만들어져 구연되었다. 특히, 그들의 위선자적 모습을 발가벗기고, 그들이 주도하는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는 대상은 이름없는 민중이었다는 기록에서 야담의 서사성이 부각된다 하겠다.

이상 본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천년왕조 신라와 신라인을 비롯해 신라도읍 경주와 지역민에 관련된 이야기는 전대 야담집 『천예록』에도 고스란히 담겨 전해진다. 전반적으로 『천예록』은 任堕의 남다른 작가의식에 문학적 재량이 더해져 서사적 면모가 뚜렷하고 소설적 재

64) 야담에서 제독관은 어린 관기의 유혹에 넘어가 함께 밤을 보내는데, 갑자기 남편으로 변장한 通引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방구석 궤짝 안에 몸을 숨긴다. 밤새 부부싸움을 하던 두 남녀는 이튿날 관가를 찾아가 궤짝의 소유를 밝히려 한다. 고민하던 부윤이 궤짝을 반으로 나누라는 판결 후 톱질을 시작하자, 숨어있던 제독관은 알몸으로 도망친다. 이에 주변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궤짝제독'이라고 놀렸다는 내용이다. 任堕, 『天倪錄』, <提督裸裎出櫃中> 全文 참조

미가 뛰어난 야담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신라에 관련된 이야기는 저자에 의해 역사와 인물, 사실과 허구를 넘나들며 흥미롭게 再構되었다.

반면, 『금계필담』은 『천예록』에 비해 서사 편폭도 짧고 문학 장치도 거의 없어 서사문학적 특징은 약하지만, 오래 전 史實을 되짚어 신라의 인물과 유산 등 역사 문화적인 면을 복원하였다. 『금계필담』의 저자는 길고 짧은 신라 이야기를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의미 그리고 조선후기에도 보존 전승해야 될 가치가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 간략하고 담담하게 서술하였다. 요컨대 兩者에서 되살려본 신라(또는 경주)의 역사와 인물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만 두 저자가 이야기를 交織하는 과정에 素材를 취사선택하고 敍事를 축약 부연한 것으로 파악된다.

4. 결론

지금까지 『금계필담』에 기록된 신라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과 허구 및 야담적 구연과 기록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천예록』에 담긴 신라 관련 이야기를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역사를 다루는 작가의식과 허구를 交織하는 서사형태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과정과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첫째, 조선 후기에 출현한 『금계필담』은 당시 조선에 전해진 신라의 풍속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예컨대 신라의 불교 전래와 사찰 창건, 정월 대보름 전통음식인 약밥, 옥보고의 현금과 악곡 등 종교와 세시풍속 및 음악 등 구연으로 전승된 여러 이야기를 채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금계필담』의 저자는 역사서에 기록된 다양한 신라의 인물 이야기를 흥미롭게 다루었다. 예컨대 신라 최고의 문장가 설총, 천사옥대의 주인 진평왕, 악무로 재조명된 선인 처용랑, 행초에 뛰어난 명필 김생, 황룡사 벽화를 그린 화가 솔거 등 기록으로 전승된 역사 속 실존인물의 이야기를 채록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초기 야담집 『천예록』은 후기 『금계필담』과 또 다른 신라의 역사와 인물을 채록하였다. 예컨대 삼국통일의 주역 김유신 장군, 경순왕대 학사로 유명한 맹도인, 위선적인 제독관의 모습을 폭로한 경주부의 관기 등 민간에 전승되던 신라(경주)의 유명 또는 무명 인물의 남다른 모습을 재미난 이야기로 채록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선 후기 야담이 신라의 역사와 인물에 주목하여 구연과 기록으로 전승된 이야기를 다양하게 채록한 결과라고 하겠다.

필자는 앞서 『천예록』 소재 신라 관련 이야기에 주목하여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고, 다시 『금계필담』 소재 신라 관련 이야기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켜 논지를 전개하였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야담집에서 신라 관련 이야기를 찾고 연구를 거듭하여 나름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ABSTRACT]

The Story of Silla in the *Geumgyepildam*
- focused on the history of oral narrations and records -

Lee, Chae-gyeong(sungkyunkwan University)

The Yadam, which appear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created by the lower class and inherited in the private, and was recorded by the literati and settled into epic literature. Beginning with Eouyadam in the 17th century, Cheonyerok in the 18th century, various Yadam collections, including Geumgyepildam in the 19th century, appeared. It mixed a colorful story of historical facts and literary fiction, completing a rich narrative style.

In this paper, the story of Silla which was recorded in the late Yadam collections, Geumgyepildam, was discussed.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how Silla customs and figures were passed down through verbal stories and records. First, the records of Silla in th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Samguksagi and Samgukyusa was compared and analyzed with records in Geumgyepildam, and further examined the Silla story based on Cheonyerok, an early Yadam collections,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story transmission and Yadam according to the changing time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above discussion, the following is drawn. First, Geumgyepildam, which was written in the late Joseon Dynasty, captures the customs of Silla that were handed down to

Joseon at that time. Second, the author of Geumgyepildam described with the stories of various Silla personages recorded in the history books. Third, Cheonyerok, which was written in the previous era, recorded a different history and character of Silla(Gyeongju) from Geumgyepildam. As such, the Silla story recorded in the Geumgyepildam depicts various customs and characters based on historical facts and fiction, literary oral narrations and records.

Key words: *Geumgyepildam*, Yadam, oral narration, a record, Silla, Joseun, history books, *Cheonyerok*

[참고문헌]

□ 기본자료

김부식,『삼국사기』

일 연,『삼국유사』

이행 외,『신증동국여지승람』

남효온,『추강집』

윤 기,『무명자집』

이의현,『도곡집』

서유영,『금계필담』

임 방,『천예록』

한국고전번역원 DB

□ 단행본

이강옥,『한국 야담 연구』, 돌베개, 2006.

임완혁,『구연 전통과 서사』, 태학사, 2008.

□ 논문

강미정,「『錦溪筆談』 소재 <光廟有一公主>를 통해 본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문제의식과 그 한계」,『한국고전연구』 제2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177-222면.

김성혜,「정창원 신라금 관련 유물 연구」,『신라문화』 제50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7. 81-111면.

이강옥,「『六美堂記』와 『錦溪筆談』의 비교분석을 통한 소설과 야담계 서사체의 관계 양상 고찰」,『한문학보』 제12권, 한국학보(서지사), 1986. 1121-1145면.

이채경,「야담집 소재 신라 및 경주 이야기 연구 -『天倪錄』,『雜記古談』,『東稗洛誦』을 중심으로」,『신라문화』 제41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3. 353-382면.

이채경, 「문무왕 신격화의 변전 양상과 현대적 의의 -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68집, 한국문학회, 2014. 117-142면.

이채경, 「耳溪 洪良浩의 학문자세와 학적성취 - 新羅 관련 碑文·祭文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제46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5. 279-312면.

이채경, 「『三國遺事』와 스토리텔링 - 동서양 이야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학』 제39집, 국제언어문학회, 2018. 257-289면.

이현주, 「『天倪錄』 所載 神異談의 서사와 미적 특질」,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5.

임완혁, 「19세기말 야담의 변모에 대한 일고찰 - 『금계필담』에 수용된 전대 작품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제13권, 한국한문교육학회, 1999. 383-413면.

임완혁, 「『錦溪筆談』 異本考」, 『한국한문학연구』 제23권, 한국한문학회, 1999. 390-416면.

전기웅, 「『삼국유사』 소재 '眞聖女大王居陀知'조 설화의 검토」, 『한국민족문화』 제38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217-251면.

진재교, 「『天倪錄』의 作者와 著作年代」, 『서지학보』 제17집, 한국서지학회, 1996. 41-68면.

접수일: 2020.08.01 총평일: 2020. 08.26 게재확정일: 2020.08.29